

40代 학자들의 칼럼이기고 ②

편가르기가 무서운 사회다. 아침 출근길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며 현관 앞에 놓인 신문물을 보고 '아,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나와 같은 편,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나와 반대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 한가지로 상대방이 나와 같은 편인지 혹은 다른 편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또 설사 적인지 친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실을 생활의 순간 순간마다 매번 확인하는 일이 어디 즐거운 일인가.

그러나 현실은 이미 그런 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그 무슨 '안티 어찌고' 하는 운동이 가져다 준 유행하지 못한 결과다. '안티 어찌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소수집단이 현실을 풍자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무슨무슨 죽이기'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환영할 수 있었다. 물론 반드시 그 '안티'와 '죽이기'의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수집단이 다수 억압

그러나 최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도 지나치게 억압받아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소수집단의 생각과 표현방식이 '국민의 정부' 등장과 함께 '이단(heterodoxy)'에서 '정통(orthodoxy)'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한국역사 초유의 실험이 성공하자 과거의 이단은 정통이 되었고 거꾸로 과거의 정통은 이단이 되었다. 물론 그러한 변화 자체를 도저히 받

더 나아가 보다 세련되고 철저한 방식으로 계승 및 발전시키고 있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과거의 정통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순진했다. 정통은 정부가 내놓고 보호했고 또한 이단은 정부가 내놓고 억압했다. 그러나 요즘은 정통을 정부에서 보호하지 않는 듯이, 그리고 이단을 정부에서 억압하지 않는 듯이 보이도록 포장한다. 그러나 이면을

못해 나서는 듯 슬그머니 끼어 든다. 그렇지만 방식은 더 철저하다. 물리적 억압기구 대신 합법적인 정부의 모든 제도적 수단이 한꺼번에 동원되어 이단을 차단하기 시작한다. 결국 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통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단은 완벽하게 제압된다.

의견 다르면 '반개혁' 낙인

최근 편가르기가 무서운 까닭은 편가르기의 이면에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의 개입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증팔구는 새로운 정통의 자리를 차지한 '시민단체'가 과거 정통의 자리에 있던 모든 집단들에 '반개혁' '반통일' '수구기독권'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부의 입김이 닿는 모든 제도적 장치로부터의 소외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은밀하고도 철저한 정부의 고사작전(枯死作戰)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사실이다. 편가르기가 '너 죽고 나 살자'의 칼부림이 되는 까닭이다.

진정 한국은 소수와 다수 그리고 정통과 이단의 공존이 불가능한 사회인가?

/연세대 교수·사회학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柳錫春

아들일 수 없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골보수'라는 평가를 듣는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정상적인 지식인들'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통과 이단이 공존해야만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문제는 새로운 정통이 과거에 정통이 이단을 억압하던 방식 그대로, 아니 한 걸음

들여다보면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정부가 정통을 지원하고 이단을 억압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신문사 탈세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새로 정통의 자리를 차지한 '무슨무슨 죽이기'나 '안티 어찌고'가 먼저 나서서 이른바 개혁을 이야기한다. 이어서 새로 정통으로 등극한 신문이 이단으로 바뀐 신문을 공격한다. 그러면 정부는 마치 마치

政府와 손잡은 '안티' 기존 '正統' 枯死작전